

June 2018

Vol. 5 No. 1

**KSOE** The Korean  
Society of  
Ocean  
Engineers

**NEWS LETTER**



사단  
법인 **한국해양공학회**  
The Korean Society of Ocean Engineers

# KSOE

The Korean Society of Ocean Engineers

## NEWS LETTER

### Contents

- 03 칼럼 : 새로운 도전,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위해
- 05 칼럼 : 연안침식 방지대책이 필요한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 08 자유기고 : 호주 해양자원개발의 중심 퍼스를 다녀와서
- 13 회원소식
  - 인사
  - 수상
- 14 학회 소식
  - 한국해양공학회지 홈페이지 리뉴얼
  - 2018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시상 >> 학회장상, 추계학술우수 논문상, 특별상
- 17 연구회 소식
  - 한국수중로봇기술연구회
  -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 18 안내 및 홍보
  - 2018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 2018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정기총회
  - 회비납부
  - 국제학술대회 및 관련 행사
  - JAROE 논문 모집
  - 한국해양공학회지 32권 3호 내용
  - JAROE 4권 2호 내용
- 24 신입회원

#### 한국해양공학회 뉴스레터

발행일 : 2018년 06월 20일

발행인 : 윤종성

편집인 : 김윤해, 권순철, 구자삼, 김요석

발행소 : 사단법인 한국해양공학회  
(4882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13, 1302호

전화 : 051-759-0656, 070-4290-0656

팩스 : 051-759-0657

E-mail : ksoehj@ksoe.or.kr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기사는 (사)한국해양공학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새로운 도전,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위해



홍사영(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信言不美 美言不信’,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믿음이 가는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답게 꾸민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인데, 과거 역사를 보면 충신과 간신의 역대 전적에서 왜 충신들이 연전연패를 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말이다. 필자의 연구실 칠판 맨 위에 써놓고 매일 음미하는 말이기도 한다. 필자도 과거에는 한 까칠했었는데, 금연 후 몸무게가 한 10킬로그램 늘고 난 후에는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인상 좋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 출근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는 유치원 가는 꼬마들에게 할 아버지란 호칭을 종종 듣게 되는 것에서 ‘아! 이것이 신언불미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다.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한 정치가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우선은 본인의 정치적 이력과 성취를 세련되게 홍보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개혁방안을 설명하시는데 예로 드는 나라들이 핀란드, 스위스와 같은 소국들 얘기만 하신다. 그래서 인상 좋은 필자가 옛 버릇을 못 버리고 ‘의원님, 모든 문제를 잘 풀려면 예제를 잘 골라야 하는데 의원님이 예로 드신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체급이 안 맞습니다. 말씀하시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말일 수는 있으나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5030 클럽에 속하는 나라 중 하나로 예를 들어 정책을 고민해 주

십시오.’ 해버리고 말았다. 아차! 참았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신언불미 미언불신’을 되내이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요즘은 SNS가 대세이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드루킹 사건 등은 대표적인 SNS의 과유불급의 일례가 아닌가 한다. 동계 올림픽으로 빚어진 청와대 청원을 보노라면 ‘혹시 공산주의 이론이 수명을 다한 것처럼 민주주의도?’ 하는 기우가 들기도 한다. 여차하면 SNS의 맹폭을 받는 일이 생겼다 보니 나름 사회적 인지도와 품위를 가진 전문가들이 ‘신언불미’를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하는 모든 말들이 노력과 단련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도전, 도전을 통한 성취와 교훈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공감’, ‘위안’ 과 같이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만 오간다. 틀림없이 위로는 되겠지만 이런 듣기 좋은 위로만으로는 호랑이이가 되어야할 우리의 젊은이를 고양이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정치가와 같이 표에 민감하여 여론에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노출이 많이 되다보니 직업상 하는 말이려니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 이상한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는 오히려 할 말은 하는 분위기였는데 SNS 소통시대가 오히려 할 말을 못하게 만드는 아이러니이다.

올해 들어 세계 경기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도 서서히 기지개를 펴는 것 같다. 신문에 보니 어느 조선사의 사장님이 고양이 목의 방울과 같은 조선산업 빅2체제 이야기를 꺼내셨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이 보다 경쟁력 있는 체제로 개편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생물체는 '도전과 응전', '정반합', '진화'의 승리자들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전을 통해 성취한 DNA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금의 성취를 이루었다. 우리 조선해양 분야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선 빅3가 그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 이룬 업적을 모두 알고 있다. 모든 1인자들은 1인자가 된 방법으로 추락한다고 한다. 몇 년의 어려움을 겪은 우리 조선해양산업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에서 역시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자부심을 느낀다. '신언불미', 우리나라 조선 CEO가 해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당당히 세계에서 7번째로 5030 클럽 회원이 되었다. 대단한 일이다. 이 의미는 앞으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첨단 ICT 산업국이면서도 주력산업분야에서는 아직도 30, 40년 전 수출 모델에 매몰된 느낌이다. 우리나라 인구 1억이 내수시장 경제의 기준이 되는 듯하나 5030클럽 회원 중 인구 1억을 넘기는 나라는 고작 미국과 일본뿐이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스스로가 고객이 되는 해양산업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필자가 이해하는 인더스트리 4.0시대의 메시지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며 빅데이터 시대의 요청도 우리가 주인 되는 시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해운강국이기는 하지만 인구소국인 노르웨이 등에서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보여주는 도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음미해 볼만하다. 해운, 조선을 포함한 해양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행히 아직은 우리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LNG와 관련된 첨단선박 분야가 있다. 또한 이 분야는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소비자로서 자리를 잡은 분야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납품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어 운영의 주체로서의 LNG를 포함한 해양안전, 환경 및 해양영토 관리, 관광 등 우리의 바다를 무대로 여러 분야에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21세기 아젠다인 기후변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새롭게 떠오르는 FEW(Food, Energy, Water) 플랜트, 스마트 해상도시, 자율운항선박, 해양드론 등 우리가 도전할 분야가 산적해 있다.

훌륭한 엔지니어는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조선해양산업도 대외 수요에 의존하는 천수답형 수출산업 모델에서 탈피할 때이다. 마침 정부에서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 및 조선산업 재기의 발판을 만든다고 하니, 조선 빅2 체제와 함께 지속가능 조선해양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 기회를 잘 살려 새로운 조선해양산업 도약을 기대해 본다.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디고 힘들 수 있다. 어느 철학과 교수님 말씀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다음과 같단다. '선진국은 계획이 서면 목표를 세우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반면에 후진국은 계획이 될지 안 될지를 따지다가 시기를 놓치고 만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전략으로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한다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성취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다. 새롭게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다. 그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남들이 안 해본 것에 도전해보자. 시작은 미미할지라고 끝은 장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글을 쓰다 보니, 필자가 信言을 했는지 美言을 했는지...

# 연안침식 방지대책이 필요한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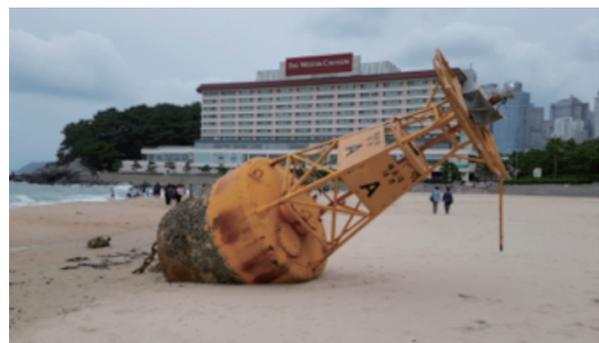


**권순철**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국내 해안을 포함한 세계 해안에서는 연안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연안침식은 연안에서 파랑, 바람흐름, 조류의 상호작용과 연안으로 유입되는 모래보다 유출되는 모래의 양이 더 많은 모래수지(Sand Budget)의 불균형으로 인해 해안의 모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후퇴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고파랑 내습 빈도증가 등의 자연적 요인과 함께, 도시개발에 따른 하천유사 공급량 감소, 연안 개발에 따른 해수유동 변동 등의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표사수지 불균형 현상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고파랑 발생과 기압경사에 따른 너울성 파랑이 증가하여 해안침식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안침식 피해는 국토면적을 손실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해안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는 침식피해로 유실된 해안선의 복원 및 유지를 목표로 ‘연안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관련현상 이해도 및 연안지형변화 예측신뢰도의 부족, 경성공법 적용에 의해 발생된 2차 침식, 그리고 연안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해 그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침식피해 대응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해안지역의 기반암이 침식저항이 강한 화강암과 변성암이고 오랜 세월 동안 해안선이 파랑과 조석에 적응했기 때문에 지표윤회에 따른 일부 해안의 토사포락을 제외하면 침식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댐, 보, 하천제방 축조와 도시화에 의한 하천토사공급량 감소, 어항방파제 등 해안인공구조물 건설에 따른 파랑장 변화, 해안도로 신설·확장 등 배후지 개발에 의한 백사장 완충폭 감소의 인위적인 원인으로 현재에도 이와 같은 침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안침식 피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동해안의 연안침식 역시 자연적인 원인과 인공구조물 건설에 따른 인위적인 원인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2016년 10월 5일 남해안을 따라서 부산과 울산 앞바다를 통과하여 동해로 빠져나간



[그림1] 2016년 태풍 차바에 인한 고파랑으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유실된 부표



[그림2] 양빈작업이 진행 중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태풍 차바로 인한 고파랑으로 대규모 해안침식과 월파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그림 1). 이런 연안침식이 광안대교 황령산과 어우러져 한쪽의 그림같은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명소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6년 수영구청에서는 심각한 모래유실로 줄어드는 백사장을 보호하고자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빈공법을 통한 백사장 복원을 실시하였다 (그림2).

양빈공법 적용 후 수영구청은 한국해양공학회에 의뢰하여 “광안리 해수욕장 양빈 후 백사장의 해안선 변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2014년의 10년 사이에 백사장이 년 평균 20,000m<sup>3</sup>이 유실되었으며, 2014년 평균 해빈폭이 47.6m로 2011년에 비해 3.2m정도 줄어들었다. 이는 1950년도 위성사진의 광안리 백사장 해안선과 현재를 비교하면 확연한 연안침식으로 인한 해빈폭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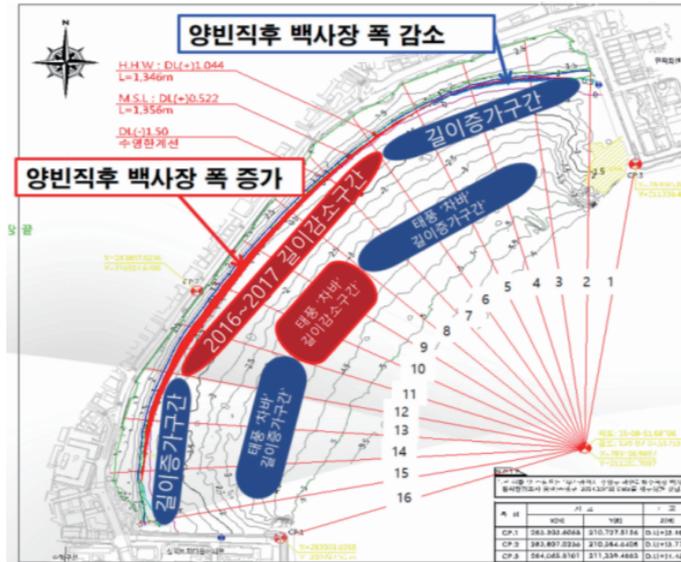
[그림3] 1950년대 대비 감소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의 해빈폭 위성사진 전경

특히, 2016년 5월 양빈작업을 실시한 후 2016년 10월 태풍“차바”가 부산을 비껴 지나간 후 양빈한 모래의 50%가 유실되었으며,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50%의 모래도 유실되고 있다(그림 4).

2014년 광안리 해수욕장의 모래량은 175,000m<sup>3</sup>였고, 2016년 양빈공법을 통해 모래량을 206,000m<sup>3</sup>로 증가 시켰으나 1년 후 모래량은 190,800m<sup>3</sup>로써 15,200m<sup>3</sup>이 감소하였다. 유실이 심각한 구간의 백사장의 폭은 2014년에 26m, 2016년에 40m(양빈으로 백사장 길이증가), 2017년에 35m로 확인되어 1년간 5m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연안침식이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는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현재 백사장은 자연의 힘에 의해 안정된 백사장이 될 수 없다. 주변의 개발로 인해 모래의 유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계속해서 주기적이고 인위적인 양빈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바다모래를 채취해서 백사장을 보존하는 양빈방법도 더 이상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EEZ 해상에서의 모래채취로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환경이 파괴되어 연근해 어업을 하는 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더 이상의 모래 채취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실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타 해수욕장의 경우 양빈공법으로 모래를 채취하여 백사장을 넓히는 방법에 한계를 인식하고 유실방지 대책으로 수중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잠제공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1m당 시공비가 1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고가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점당 수백억



[그림4] 태풍차바 내습 후 해변폭 변경특성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안침식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함께,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인해 또 다른 침식피해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그림 5).

송도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다대포 해수욕장 등 부산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침식대비시설을 완료하였거나 예정에 있으나 광안리해수욕장만 유독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광안리 백사장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안침식 대응기술을 개발하여 더 이상의 침식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안정비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연안침식 모

니터링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사업이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다.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과 같은 국가 R&D를 계속 수행하여 연안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특히, 해역별 연안 표사계를 설정하고 표사계 내 모래의 유입·유출량을 검토하여 연안표사수지 체계를 구축해야 연안개발이나 인공구조물 설계, 시공 시 발생 가능한 연안침식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결국, 기후변화와 연안개발로 야기되는 침식피해로부터 연안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안침식 관리 구역 기준 마련과 연안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공동정책이나 협동 관리체계를 수립해서 실질적인 연안침식에 대응하여야 우리의 국토를 보전할 수 있다.



[그림5]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인공 구조물. (좌)잠제, (우) 잠제와 헤드랜드

# 호주 해양자원개발의 중심 퍼스를 다녀와서



**이강남**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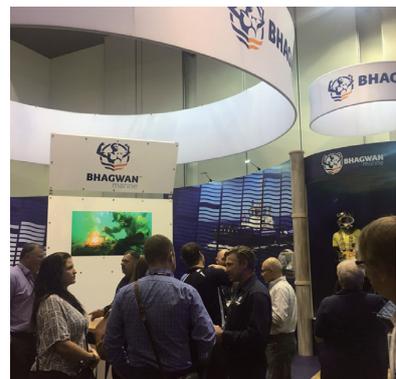
## ■ 서론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이강남입니다. 조선해양공학과 해양플랜트시스템연구실에서 정광호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의 유체동역학적 설계 기술, 위치유지 성능 해석 및 형상설계기법 개발, 파랑 충격현상 연구, 파이프 및 밸브 연구 등의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12일 부터 16일 까지 총 5일 동안 호주 Curtin University와의 심해저 개발 및 심해 생산 기술 연구를 위한 학생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 호주에 위치한 퍼스(Perth)라는 도시를 다녀왔으며, 이 방문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 방문 계기

호주는 세계 4대 천연가스(LNG) 수출국 중 하나로, 석유·가스 개발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퍼스라는 도시는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호주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의 요충지로서, Woodside를 포함한 세계 주요 석유·가스 개발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퍼스에 위치한 대표적인 대학은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와 Curtin University 가 있으며, 부산대학교는 2017년부터 서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교인 Curtin University 와 'Retrofitting Smart Technologies to Existing Subsea Facilities to Improve Productivity' 라는 주제로 심해 해양자원개발 관련 공동 연구 및 학생 교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AOG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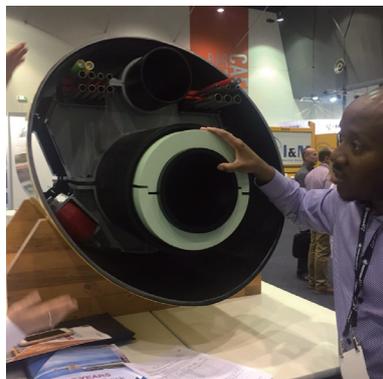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12월에는 Curtin University 소속의 교수 및 학생들이 부산대학교와 삼성중공업 야드를 방문하였으며, 이번에는 부산대학교 정광호 교수님 및 김병수 교수님과 학생들이 호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류행사 및 일정은 AKF(Australia-Korea Foundation) 및 호주 정부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 AOG 2018 참가

이번에 참가하게 된 AOG(Australian Oil and Gas Conference) 2018은 2018년 3월 13일부터 15일 까지 열린 호주 석유·가스 전시회로서, 세계 15개의 국가 및 약 8000명의 산업 관계자가 참여하고 약 200개의 업체가 전시하는 남반구 최대 석유·가스 산업 전시회입니다. 퍼스에서 매년 열리는 이 전시회는 올해 29주년을 맞아 침체된 산업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술교류 및 홍보

를 위해 전 세계 석유산업 전문가들이 퍼스에 모였습니다. 석유·가스 산업이 저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참여 기업 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Woodside, Santos 등 주요 석유가스 개발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석유·가스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면서 석유산업의 최신 기술 및 선도 기술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AOG 2018은 크게 컨퍼런스 및 전시회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컨퍼런스는 크게 세 주제의 포럼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Collaboration Forum 에서는 다양한 석유·가스 개발 관련 공동프로젝트 수행 사례 및 기술 개발 사례 소개, 현재 시장 상황 및 미래에너지와 관련된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Subsea Forum에서는 현재 수행 중인 심해저 프로젝트 소개, 파이프 및 Flow assurance 관련 연구 및 검사 기술과 모니터링,



[AOG 2018 전시 부스]

■ 한국해양공학회 뉴스레터, 제5권 제1호

해체기술 등 호주의 다양한 심해저 자원개발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Knowledge Forum에서는 IT기술 융합 및 위성을 이용한 사례 소개 등 산업의 최신기술을 소개하며 기업 자산운용부터 건강까지 매우 다양한 지식에 대한 발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러한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매우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자사의 기술을 홍보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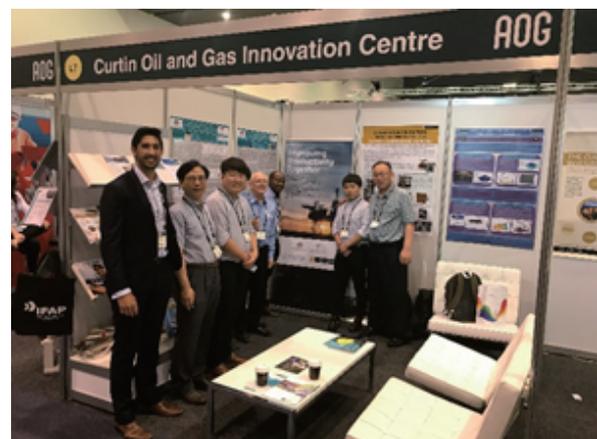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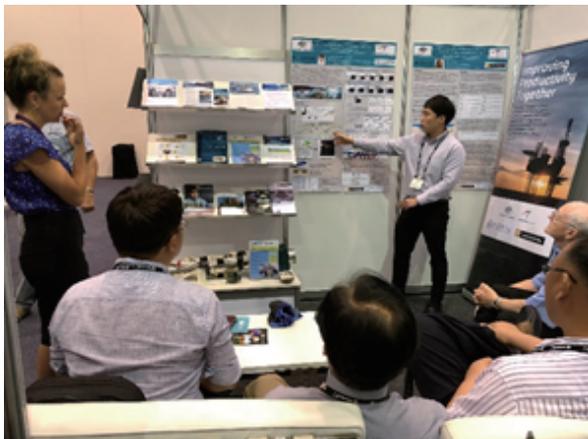
전시 박람회에서는 총 200여개의 해양자원개발 관련 기업들이 기술 및 장비·부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석유·가스 산업의 최신 기술 및 심해저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장비들을 한 눈에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다채로운 체험행사 및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있어 학생인 저에게도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국내에서 열린 박람회와 다르게 학생이라고 말했을 때 기업 관련 종사자들이 더 친절하게 관련 기술 및 장비를 설명해주며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려 노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용기를 얻어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AOG 2018에는 국내 기업이 하나도 입

점하지 않아 아쉬웠으며, 추후 박람회에서는 국내 기자재 및 관련 업체들도 세계적인 타 업체들과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Curtin University 부스에서 포스터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발표 후 많은 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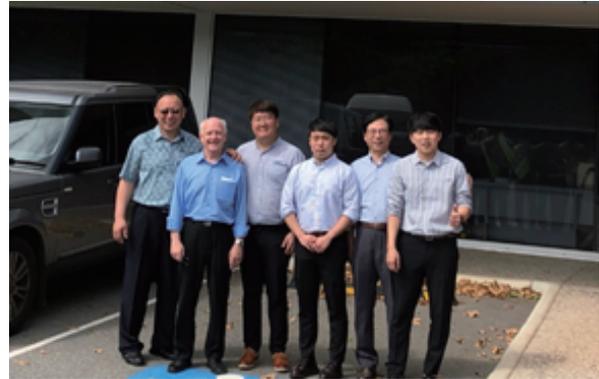
■ 심해저 장비 개발기업 탐방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는 오전시간에는 심해저 장비 개발의 선두주자인 GE Oil & Gas와 TechnipFMC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실제 해양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던 BOP, Tree와 같은 심해저 장비를 유지 및 수리하는 곳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의 집합체인 심해저 장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중요한 장비들을 다루는 곳인 만큼 무엇보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 및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무엇보다 산업이 예전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인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며 지금의 위기와 역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Curtin-PNU Improving Productivity Together’ 기술세미나 및 연회



[포스터 발표]



[GE Oil & Gas 및 TechnipFMC 견학]

마지막 날인 15일 저녁에는 AKBCWA(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of Western Australia)의 주최로 열리는 기술세미나 및 연회에 참가하였습니다. ‘Curtin-PNU Improving Productivity Together’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는 부산대학교 및 Curtin University 각 학교의 석유·천연가스 관련 기술연구 및 개발 내용 등을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한국과 호주의 다양한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학교 학생들이 각자 연구하고 있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udy on Green Water Phenomena of Fixed Rectangular Structures, Gangnam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 Application of Data Analytics to Detect Leaks in Subsea Hydraulic Control Systems, Kimberley Stimson, Curtin University
- 사실 서로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내용의 연

구이지만, 두 연구 모두 석유·천연가스 개발 기술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연구하는 학생들의 발표로서 이를 통해 서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기술 세미나 이후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다른 공학 분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함께 이 산업을 이끌어 나갈 동료라 생각되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 ■ 문화 체험

호주 퍼스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7위로 선정될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여름과 겨울이 반대인 호주는 방문 당시 늦여름으로 매우 더운 날씨였습니다. 덕분에 아름다운 퍼스 해변에서 일광욕 및 수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있는 King's park와 호



[‘Curtin-PNU Improving Productivity Together’ 세미나 및 연회]



[퍼스에서의 문화교류]

주의 해양 역사가 모두 담겨있는 해양박물관 역시 기억에 남는 퍼스의 관광지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우리를 초대해주고 모든 일정을 조율해 준 Curtin University의 Brian Evans 교수님 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Curtin University 학생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를 먹으며 같이 오순도순 저녁을 함께 한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방문기간 내도록 날씨가 매우 더웠지만, 만났던 사람들 모두 친절하고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 결 언

지금 해양자원 개발 및 연구 분야가 많이 침체되었다는 소식을 곳곳에서 전해 들었으나, 이번 퍼스 방문을 통해 지금 전 세계에서는 다음 도약

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처한 위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앞으로의 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한층 깊게 생각해 보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 교류 프로젝트를 통하여 같은 해양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서로 알아가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되며, 머지않은 미래에 이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 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 인사



**홍 사 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고문  
ISOPE 회장 선출

2018년 6월10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2018년 국제극지해양공학회(ISOPE-2018)에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홍사영 책임연구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임기의 ISOPE 회장에 선출되었다.



**성 홍 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사  
ISOPE 이사 선출

2018년 6월10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2018년 국제극지해양공학회(ISOPE-2018)에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성홍근 책임연구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임기의 ISOPE 이사에 선출되었다.

■ 수상



**김 동 하**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박사과정) 회원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해양기술부문 최우수상 수상

5월 24일 2018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김동하 학생이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해양과학기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협의회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과학기술 분야 학술발전과 관련 신진연구자의 사기 진작 및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논문명: Intensively Stacked Placement Models of Artificial Reef Sets Characterized by Wake and Upwelling Regions  
- 저 자: Dongha Kim, Jinho Woo, Won-Bae Na



**안 준 건** (KAIST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회원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해양기술부문 우수상 수상

5월 24일 2018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안준건 학생은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해양기술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 논문명: Fuzzy-based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MEA) of a hybrid molten carbonate fuel cell (MCFC) and gas turbine system for marine propulsion  
- 저 자: Junkeon Ahn, Yeelyong Noh, Sung Ho Park, Byung Il Choi, Daejun Chang



**최 혁 진** (경상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회원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특별상 수상

5월 24일 2018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최혁진 학생은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KIOST 원장상으로 대학생들의 향후 관련 연구계획 에세이를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임 성 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연안계획과 서기관) 회원  
한국해양공학회 특별상 수상

5월 25일 2018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임성순 회원은 한국해양공학회 특별상을 수상했다.

연안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미래 연안보존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여 국내 연안발전에 크게 기여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한국해양공학회지 홈페이지 리뉴얼

한국해양공학회지 홈페이지(www.joet.org)가 지난 5월 리뉴얼 오픈했다. 이는 2019년부터 발행하는 한국해양공학회지를 전자책으로만 발간하기로 함(2017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학술지 배포를 위한 것이다.

리뉴얼 된 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시성을 살려 구축했다는 점이다.

학술지가 발간되면 목차에 논문페이지를 링크하여 전 회원의 이메일로 전달하게 되며, 최신호를 PC 및 모바일 버전 웹사이트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웹사이트는 한국해양공학회지 제1권 제1호부터 최신호까지 누구나 로그인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학술지의 국제적 이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영문양식이지만 간단한 조작으로 국문으로도 열람되며, 논문은 한국어 및 영어로 검색할 수 있다. 2013년부터 발간된 논문은 전문이 XML로도 제공되어 PDF파일을 다운로드 하지 않더라도 웹상에서 논문 전문을 읽을 수 있다.

이로써 한국해양공학회지의 내외국 독자 편의성을 제공하여 이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 2018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지난 2018년 5월 24일-25일 이틀 동안 제주 ICC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가 주최하고 우리 학회를 비롯한 6개 유관학회의 공동주관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하나의 터전, 상생과 나눔의 바다’라는 주제로 해양신산업에 대한 심포지움을 열었고, 6개의 공동워크샵(‘해양과학기술과 국제·남북협력’,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항만으로 구현하는 4차산업혁명’, ‘지속 가능한 하구역 복원’, ‘해양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친환경 선박기술의 개발동향과 미래전망’, ‘연안침식 저감기술 및 관리정책의 선진화 토론’)과 주관 학회별 총 900여 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또한 해양과학기술 관련 전시회가 열렸다.

-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 주 관 : 한국해양공학회,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 후 원 : 해양수산부,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
- 행사일자 : 2018. 5. 24~25
- 행사장소 : 제주 ICC
- 학회간 공동워크샵 참여 주제
  - ‘연안침식 저감기술 및 관리정책의 선진화 토론’을 주관하고 ‘친환경 선박기술의 개발동향과 미래전망’에 참여
- 한국해양공학회 발표논문 : 총 131편
  - 학회간 공동워크샵 : 2편
  - 일반발표 : 17개 세션 110편
  - 기획세션 : 4개 세션 21편
    - A. 해상부유식 LNG병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 B. 초심해역 Oil/Gas 개발용 Steel Lazy Wave Riser 설계 엔지니어링
    - C. 중소조선 스마트 야드 구축을 위한 선체 자동화 생산 기술개발
    - D. 연안침식 저감시설의 현장적용

■ 시상

• 2017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생우수논문발표상

우리 학회는 춘·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학생회원을 대상으로 ‘학생우수논문발표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포상위원회는 2017년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2017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학생회원 중 6명을 선정하여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였다.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학생우수논문발표상 수상자〉

수상자	대학교/전공	발표논문
이강남	부산대학교 대학원/ 조선해양공학	사각형 해양구조물에 발생하는 Green water 현상의 유동 특성 및 압력분포에 관한 실험적 연구
안우성	경상대학교 대학원/ 조선해양공학	아라온호 빙하중 계측을 위한 힙 프레임의 전단 게이지 부착 위치 선정 연구
안준건	KAIST 대학원/ 기계공학	불확실성을 고려한 공정위험 및 운전분석(HAZOP) 기법
홍영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사회환경공학	해상처분장 연직차수공 이음부의 차수성능 평가
이상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최적화 기법과 전문가 시스템 기반 LNG FPSO의 통합 배치 설계 방법
강현석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Ray-type 수중글라이더의 동역학 모델 개발

• 2018년도 한국해양공학회장상

매년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분야 우수 학생을 추천받아 ‘한국해양공학회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3개 분야에서 총 12명의 학생이 선정되어, 각 대학교 졸업식에서 상장과 상품을 시상하였다.

〈2018년도 한국해양공학회장상 수상자〉

분야	수상자	대학교	전공
기계·재료·에너지공학	서은교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조대인	경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
	이태운	전남대학교	생산기계공학
	심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기계공학
해양·조선공학	이청아	제주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
	이지훈	창원문성대학교	조선해양플랜트
	변창용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
	황종빈	군산대학교	조선공학
	제중훈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
해양토목	오유상	부경대학교	해양공학
	차은주	강릉영동대학교	토목건설
	정석환	목포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건설공학

■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회장 이종무(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총무 김아영(KAIST)]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2018 춘계학술대회〉

- 일 자 : 2018년 4월 26일~4월 27일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KI 빌딩
- 주 최 :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 주 관 : KAIST
- 후 원 : 대양전기공업(주), 한화시스템(주), LIG넥스원(주), 레드원테크놀로지(주), 마린이노텍(주), 소나테크(주), 오션테크(주), 경인테크(주), 씨넷(주), 지오소나(주)
- 내 용 :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회장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종무 박사)는 4월 26일과 4월 27일 이틀간 대전광역시 KAIST 본원 KI 빌딩에서 춘계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가 주최하고 KAIST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 대회에는 산/학/연/군/관 관계자가 100여명이 참석하고, 수중 및 수상 로봇의 플랫폼 및 운영, 항법 및 제어, 센서 및 통신 기술 세미나와 함께 관련 업체들의 전시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 대회에는 포항공과대학의 유선철 교수가 해외 수중로봇 동향 및 극한로봇 연구실에 대한 소개 강의와 함께 한국로봇융합원의 이계홍 박사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 ▶ 특별 세미나1 : 세계의 수중로봇 동향 및 극한환경 로봇연구실의 연구소개, 유선철 교수(포항공과대학)
  - ▶ 특별 세미나2 :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수중로봇 기술 개발 사례 소개, 이계홍 박사(한국로봇융합원)
  - ▶ 학술세션 : 플랫폼 및 운용, 항법 및 제어, 센서 및 통신 분야에서 18편 발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홈페이지([www.korea-uuv.org](http://www.korea-uuv.org))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춘계워크숍’ 개최

[회장 김태진(현대중공업), 총무 송시명(현대중공업)]



〈2018년도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춘계 워크숍〉

- 일 자 : 2018년 5월 31일~6월 1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 주 최 : (사)한국해양공학회 산하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 주 관 : 현대중공업(주), (사)한국해양공학회
- 후 원 :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POSCO(주), 두산중공업(주), 싸이트로닉스, BV선급, KR선급, DNV-GL선급, ABS선급, LR선급, (주)글로벌리아, KT서브마린(주), 부민엔지니어링(주), 피오르드프로세싱코리아(주), 벤틀리시스템즈코리아, 신한전자기기, 시디에스인더스트리스, 대광기업(주), Gaylin Korea Co.,LTD
- 발표분야  
설계, 구조, 생산, Safety, 프로세스, 유체, 자동화 8개 세션 총28편 발표

※ 상세 안내는 학회 홈페이지(www.ksoe.or.kr)에 게시합니다.

■ 2018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 개최기간 : 2018. 11. 19~20
- 개최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 발표신청 : 2018. 8. 1(수)~9. 10(월)까지 학회 홈페이지로 신청
- 원고제출 : 2018. 9. 12(수)~10. 12(금)
- 사전등록 : 2018. 10. 15(월)~11. 2(금)까지

\* www.ksoe.or.kr ▷ 춘/추계학술대회 ▷ 발표논문 신청 및 제출

■ 2018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정기총회

- 일 자 : 2018. 11. 15
- 장 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 2018년도 한국해양공학회 회비 납부 안내

회원구분		연회비	납부 방법
정 회원		50,000원	<b>1.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b> www.ksoe.or.kr → 회원안내 → 회비납부  <b>2. 인터넷 지로납부</b> www.giro.or.kr → 일반지로 납부 → 지로번호: 6998462 / 한국해양공학회  <b>3. 무통장 입금</b> 국민은행: 123-01-0060-831 (예금주: 한국해양공학회)
종신회원		500,000원	
학생회원		15,000원	
단체회원		100,000원	
특별회원	특급	6,000,000원 이상	
	1급	3,600,000원 이상	
	2급	2,400,000원 이상	
	3급	1,200,000원 이상	
	4급	600,000원 이상	
	5급	360,000원 이상	

- 정관 제9조 제4항에 따라 회비를 이유 없이 계속 2년 이상 미납 회원은 탈퇴됩니다.
- 회원정보의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학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ijoseys@ksoe.or.kr)

### ●●국제학술대회 및 관련행사 안내●●

#### ■ MASTIC—2018

- Place : Bali, Indonesia
- Date : 2018. 7. 9 ~ 11
- <http://mastic.its.ac.id/>

#### ■ PHENMA 2018

- Place : Busan, Korea
- Date : 2018. 8. 9 ~ 11
- <https://phenma2018.wordpress.com/>

#### ■ MARTEC 2018

- Place : Kuala Lumpur, Malaysia
- Date : 2018. 8. 13 ~ 14
- <http://www.martec2018.icmartec.com/>

#### ■ 9th Maritime Salvage & Casualty Response

- Place : London, UK
- Date : 2018. 9. 12 ~ 13
- <https://www.wplgroup.com/aci/event/maritime-salvage-casualty-response/>

#### ■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eanography and Marine Biology

- Place : Melbourne, Australia
- Date : 2018. 10. 7 ~ 9
- <https://www.oceanographyconference.com/>

#### ■ ISOPE PACOMS—2018

- Place : Jeju, Korea
- Date : 2018. 10. 14 ~ 17
- <http://www.isopec.org/>

#### ■ NAOME 2018

- Place : Seoul, South Korea
- Date : 2018. 10. 26 ~ 28
- <http://www.icnaome.org/>

#### ■ AUV — 2018 IEEE/OES

- Place : Porto, Portugal
- Date : 2018. 11. 6 ~ 9
- <http://www.auv2018.lsts.pt>

#### ■ 6th World Maritime Technology Conference

- Place : Shanghai , China
- Date : 2018. 12. 4 ~ 7
- <http://wmtc18.ssname.com.cn/>

## ●● 논문 공모 안내 ●●

###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in Ocean Engineering



#### 저널 개요

- 간기 : 계간 (3, 6, 9, 12월 발간)
- 온라인 저널 보기: [www.JAROE.org](http://www.JAROE.org)
- ISSN : print 2384-1052 / online 2384-1060

#### 저널 Scope

JAROE는 해양공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며, 다음 분야들을 포함합니다.

- |   |                        |
|---|------------------------|
| - Ocean Engineering Coastal Engineering | - Ocean Mining         |
| Naval Architecture                      | - Marine Hydrodynamics |
| - Offshore Technology                   | - Marine Structures    |
| - Marine Frontier and Renewable Energy  | - Port Engineering     |
| - Marine Robotics                       | - Geotechnology        |
| - Underwater Acoustics                  | - Subsea Engineering   |
| - Underwater Vehicles Marine Equipments | - Arctic Engineering   |
| - Marine Materials                      | - Oceanography         |
| - Ocean Waves                           |                        |

and all other subjects in ocean engineering

In addition to sharing the cutting-edge knowledge of new research and developments in the field, the journal also publishes review articles authored by leading authorities

#### 원고 제출

온라인 투고시스템([www.jaroe.org](http://www.jaroe.org))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8~15페이지를 권장하며, 논문 템플릿은 투고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당분간 심사료와 게재료는 무료입니다.

#### 문의처

한국해양공학회 사무국 김요석, E-mail: [ijoseys@ksoe.or.kr](mailto:ijoseys@ksoe.or.kr), ☎ 070-4290-0656

●● 한국해양공학회지(JOET) 최신호 ●●  
제32권 제3호 (2018. 6)

■ 학술논문

1. 스펙트럼을 이용한 피로손상도 계산과정 최적화 연구  
(김상우, 이승재, 최솔미)
2. 컨테이너 선박의 셀 가이드 정도 관리 시스템 개발  
(박봉래, 김현철)
3. 수치 민감도 해석을 통한 파랑중 FPSO운동 시뮬레이션  
(김제인, 박일룡, 서성부, 강용덕, 홍사영, 남보우)
4. 유빙 하중을 받는 계류된 반잠수식 시추선의 응답해석  
(김정환, 김유일)
5. 깨어진 해빙의 사항조건에서 빙 하중 추정법 연구  
(김현수, 이재빈)
6. 부산신항 건설이 진우도 주변 해저지형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실험을 통한 정성적 평가  
(홍남식)
7. 부유식 가변 피치형 수직축 풍력발전기의 발전효율에 관한 실험 연구  
(김재희, 조효제, 황재혁, 장민석, 이병성)
8. 포텐셜함수 기반 초공동 수중운동체 플레이닝 회피 제어 연구  
(김선홍, 김낙완, 김민재, 김종혁, 이건철)

※ 상세 안내는 학회 홈페이지([www.ksoe.or.kr](http://www.ksoe.or.kr))에 게시합니다.

#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in Ocean Engineering (JAROE) 최신호 Vol. 3, No. 2 (2018. 06)

1.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kirt Plates on Jacket Support Structures of Offshore Wind Turbines  
Byeong-Ryoel Choi, Han-Sik Choi, Hyo-Jae Jo, Sang-Hyep Lee, and Young-Ho Park
2. Effect of Load Condition on Turning Performance of a VLCC in Adverse Weather Conditions  
Mochammad Zaky, and Hironori Yasukawa
3. Parametric Study on Oscillating Water Column Wave Energy Converter Applicable to Breakwater  
Sewan Park, Bo Woo Nam, Kyong-Hwan Kim, and Keyyong Hong
4. The influence of meshing strategies on the propeller simulation by CFD  
Aldias Bahatmaka, and Dong-Joon Kim
5. Numerical Study of Flow Characteristics over Square Cylinders with an Attached Splitter Plate  
Van Minh Nguyen, and Bon-Guk Koo

## 논문 검색

상기 논문은 [www.jaroe.org](http://www.jaroe.org) ▷ View-FullText 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논문 투고

논문 템플릿 다운로드 : [www.jaroe.org](http://www.jaroe.org) ▷ Journal Information ▷ Author's Guide

\* 당분간 심사료와 게재료는 무료입니다.

## 문의처

한국해양공학회 사무국 김요석, ✉ [ijoseys@ksoe.or.kr](mailto:ijoseys@ksoe.or.kr), ☎ 070-4290-0656

### ■ 특별회원

1	특18031	SK건설(주)		
---	--------	---------	--	--

### ■ 정(종신)회원

1	182641	서정관	종신회원	부산대학교 선박해양플랜트기술원 / 교수
2	182697	백광준	종신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교수
3	182630	황종우	정회원	(주)경승디씨아이 항만부 / 이사
4	182631	최재완	정회원	(주)대영엔지니어링 항만부 / 이사
5	182632	이만득	정회원	(유)해광이엔지 / 부장
6	182633	안익창	정회원	(주)헤인이엔씨 기술연구소 / 전무
7	182634	김준헌	정회원	(주)서영엔지니어링 항만팀 / 부장
8	182635	김상훈	정회원	(주)세일종합기술공사 기술연구소 / 부장
9	182636	양무석	정회원	양석엔지니어링 / 대표
10	182637	정재훈	정회원	(주)건일 기술연구소 / 이사
11	182638	여봉구	정회원	(주)세광종합기술단 항만설계본부 / 상무
12	182639	박대춘	정회원	(주)세광종합기술단 항만부 / 부사장
13	182640	김종인	정회원	(주)에스엠오션 해양사업부 / 연구소장
14	182642	김현식	정회원	동명대학교 기계공학부 / 교수
15	182644	송연희	정회원	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 대학원생
16	182648	김기훈	정회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장비연구부 / 책임연구원
17	182649	남강수	정회원	현대중공업 선박구조연구실 / 책임연구원
18	182650	신창주	정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공학본부 / 선임연구원
19	182662	이충현	정회원	삼성중공업 에너지플랜트연구센터 / 선임연구원
20	182666	홍성기	정회원	목포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산중교수
21	182670	박창수	정회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지원센터 / 책임연구원
22	182672	최상열	정회원	한국알테어 사업개발팀 / 그룹장
23	182675	최재영	정회원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24	182678	최진우	정회원	대우조선해양 유체성능연구부 / 과장
25	182680	공만호	정회원	목포대학교 조선해양생산엔지니어양성사업단 / 산학협력중점교수
26	182682	임성순	정회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 / 기술서기관
27	182690	Kassa Temesgen Tkele	정회원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 박사과정
28	182691	윤경환	정회원	대양전기공업(주) 1연구소 2팀 / 책임연구원
29	182693	나양섭	정회원	한국과학기술원 재난학연구소 / 연구교수
30	182694	김봉주	정회원	부산대학교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 / 부교수
31	182696	양현수	정회원	(주)세광종합기술단 해안.항만방재연구소 / 기사
32	182698	이형석	정회원	강원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 연구교수

33	182700	강희진	정회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융합기술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34	182701	강기찬	정회원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 조교수
35	182702	조덕준	정회원	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 부교수
36	182703	박신배	정회원	국방과학연구소 6-3-3 / 책임연구원

■ 학생회원

37	172604	황수진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통합과정
38	172605	이동규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학사과정
39	172606	손희창	학생회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40	172607	유원우	학생회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박사과정
41	172608	황철민	학생회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박사과정
42	172609	지성준	학생회원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43	172610	Hassan Pouraria	학생회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연구원
44	172611	박기흠	학생회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석박사통합과정
45	172612	정종연	학생회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석박사통합과정
46	172614	민일홍	학생회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 석사과정
47	172618	양정욱	학생회원	목포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48	172619	김권욱	학생회원	목포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49	172620	정숙현	학생회원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부 / 석사과정
50	172622	이상륜	학생회원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 박사과정
51	182643	손현중	학생회원	한국해양대학교 기계공학과 / 박사
52	182645	유기연	학생회원	경상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 석사과정
53	182646	배태훈	학생회원	경상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 석사과정
54	182647	이성엽	학생회원	KAIST 기계공학과 / 박사과정
55	182651	김태곤	학생회원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 석박사통합과정
56	182652	임창빈	학생회원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 석사과정
57	182653	박정문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58	182654	김민수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59	182655	손보훈	학생회원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60	182656	고석원	학생회원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61	182657	정대성	학생회원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62	182658	이은택	학생회원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 박사과정
63	182659	이원혁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64	182660	김동민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해양유체역학 연구실 / 석사과정
65	182661	유영재	학생회원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 / 석사과정
66	182663	응우엔응옥득	학생회원	한국해양대학교 기계공학과 / 대학원생

67	182664	최하윤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학부생
68	182665	김정욱	학생회원	경상대학교 해양토목공학과 / 석사과정
69	182667	서석용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대학원생
70	182668	이민준	학생회원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 / 석사과정
71	182669	박정호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통합과정
72	182671	조용훈	학생회원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 석박사통합과정
73	182673	김성률	학생회원	경상대학교 해양토목공학과 / 석사과정
74	182674	김선엽	학생회원	경상대학교 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75	182676	응웬공위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대학원생
76	182677	무라트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대학원생
77	182679	성우진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학부연구생
78	182681	김기용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79	182683	Laksmi Anasya Arsita	학생회원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 석사과정
80	182684	Iqbal Muhammad Mazhar	학생회원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 박사과정
81	182685	Agwanda Paul Omondi	학생회원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 석사과정
82	182686	Saikhanjargal Davagochir	학생회원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 석사과정
83	182687	Shoaib Muhammad	학생회원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 석박사통합과정
84	182688	강현화	학생회원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 학부생
85	182689	서유정	학생회원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 석사과정
86	182692	최혁진	학생회원	경상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학사과정
87	182695	신희성	학생회원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사과정
88	182699	조성호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학부생

한국해양공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개인 및 단체는 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회원서 다운로드 : [www.ksoe.or.kr](http://www.ksoe.or.kr) > 회원안내 > 입회안내
- 학회 연락처 : Tel. 070-4290-0656, [ijoseys@ksoe.or.kr](mailto:ijoseys@ksoe.or.kr)

회원 동정이나 회원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알려주세요.

✉ [ijoseys@ksoe.or.kr](mailto:ijoseys@ksoe.or.kr) ☎ 070-4290-0656

June 2018

Vol. 5 No. 1

# KSOE

The Korean Society of Ocean Engineers

## NEWS LETTER



사단  
법인 **한국해양공학회**  
The Korean Society of Ocean Engineers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3, 1302호  
Tel. 051-759-0656 / Fax. 051-759-0657  
<http://www.ksoe.or.kr>